

영암군 민속씨름단 경사났네...금강·한라장사 석권

부상 투혼 최정만 11번째 금강장사
오창록 통산 4번째 한라장사 등극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 금강·한라장사를 석권했다. 최정만이 '위더스제약 2020 영덕 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통산 열한 번째로 금강장사에 이름을 올렸다. 오창록은 통산 4번째 한라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최정만은 지난 25일 경북 영덕군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금강장사(90kg 이하) 결정전(5판 3승제)에서 김민정(영월군청)을 3-0으로 제압했다.

지난해 10월 창녕장사씨름대회 우승 이후 부진했던 최정만은 약 9개월 만에 최강자 자리를 되찾았다. 개인 통산 11번째 금강장사다.

전날 16강에서 발목을 다친 그는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투혼을 발휘했다.

8강(3판 2승제)에서 김기수(태안군청)를 2-0으로 물리쳤고, 다리를 절뚝이며 등장한 4강전에서는 문형석(수원시청)을 발다리과 잡채기로 쓰러뜨려 2-1로 이겼다.

결승전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결승에 오른 김민정(영월군청)과 맞붙었다.

첫판 시작과 동시에 발다리로 리드를 잡은 최정만은 두 번째 판 들배지기를 시도하던 김민정을 또한 번 발다리로 제압했다.

세 번째 판에서는 주먹기인 들배지기로 상대를 넓혀 승리를 매조했다.

오창록은 지난 24일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5전 3승제)에서 김보경(양평군청)을 3-2로 물



최정만이 25일 경상북도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0 영덕단오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90kg이하)에서 김민정(영월군청)을 들배지기로 제압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덕 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 통산 4번째 한라장사 타이틀을 차지한 영암군민속씨름단 오창록. /연합뉴스

리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천하장사씨름대회에서도 정상 을 차지했던 그는 개인 통산 4번째로 한라급 최강자 자리에 올랐다.

오창록은 16강부터 4강까지 상대에게 한 판도 내

주지 않고 파죽의 연승을 달렸다.

8강전에서는 남원택(동작구청)을 배지기와 밀어 치기로 쓰러뜨렸고, 4강에서는 한라장사 8관왕인 최성환(영암군민속씨름단)도 2-0으로 제압했다.

김보경과 맞붙은 결승에서는 팽팽한 대결이 이어

졌다.

오창록이 첫판 밀어치기를 성공 시켜 리드를 잡 았지만, 노련미를 발휘한 김보경이 두 번째 판과 세 번째 판 연이어 득점하며 2-1로 앞섰다.

하지만 이어진 네 번째 판에서 오창록이 김보경

의 잡채기를 막아낸 뒤 밀어치기로 반격해 균형을 맞췄다.

마지막 판에서는 경기 시간 6초를 남기고 오창록 이 김보경을 배지기로 제압해 우승을 확정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육상 섯별 양예빈(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5일 경상북도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KBS배전국육상경기대회 여자 고등부 400m 결선에서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속도 내는 양예빈... 한달만에 1초53 단축

여고부 400m 56초65 우승

'육상 섯별' 양예빈(16·용남고)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양예빈은 지난 25일 경상북도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KBS배전국육상경기대회 여자 고등부 400m 결선에서 56초65로 우승했다.

57초60에 결승선을 통과한 2위 박미나(두호고)

와 격차는 0.95초였다.

고교 1학년 양예빈은 사실 순위가 아닌 기록과 싸 운다. 양예빈은 정확히 한 달 전인 6월 25일, 고교 입학 후 처음 치른 대회인 한국 18세 이하 육상경기 대회 여자 400m 결선에서 58초18로 우승했다.

한 달 동안 양예빈은 1초53을 단축했다.

아직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

양예빈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7월, 55초29

의 400m 한국 여자 중학생 기록을 세웠다.

올해 고등학생이 된 양예빈은 피로 골절 탓에 두 달 정도 재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여파로 인해 훈련 환경이 좋지 않아 훈련 량도 부족했다.

부상을 떨쳐내고, 훈련량을 늘리면서 다시 속도 가 붙었다.

양예빈이 기량을 완전히 회복하면 일반 부 최정상급 선배들과도 경쟁할 수 있다. /연합뉴스

배상문 250야드 남기고 '기적의 홀아웃'

위더해저드 두번 빠진 후 원더샷

PGA 사상 최대 거리 파 세이프

배상문(34)이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 진 기록을 하나 보냈다.

배상문은 지난 24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 주 블레이크의 TPC 트윈시티스(파71)에서 열린 PGA투어 3M오픈 1라운드 18번 홀(파5)에서 기 적 같은 파세이프에 성공해 눈길을 끌었다.

티샷한 볼이 위더해저드에 들어가 발타를 받고 친 세 번째 샷마저 물에 빠진 배상문은 무려 250야 드를 남기고 다섯번째 샷을 쳐야 했다.

아무리 잘해야 보기도 더볼보기 이상 스코어가 예상됐으나 배상문이 하이브리드 클럽으로 친 볼 은 그린에 올라가더니 거짓말처럼 킥 속으로 사라 졌다. 파를 지킨 것이다.

골프 다이제스트는 PGA투어가 샷링크로 선수 들의 샷 거리를 측정한 2003년 이후 가장 먼 거리

에서 파를 잡아내며 홀아웃한 기록이라고 보도했 다.

종전 기록은 2011년 스티브 보디치(미국)가 RBC 헤리티지 1라운드 4번 홀(파4)에서 176야드 거리에서 친 네 번째 샷을 홀에 집어넣은 것이다.

배상문은 그러나 4오버파 75타를 적어내 컷 통 과가 쉽지 않다.

더스틴 존슨(미국)이 18번 홀에서 기록한 9타도 화제가 됐다.

존슨은 완벽한 티샷을 때렸으나 핀까지 208야드 를 남기고 6번 아이언으로 친 볼은 그린 앞 위더해 저드에 빠졌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두 번 더 물에 빠뜨린 뒤 벌 타를 포함해 8번 샷으로 그린에 볼을 올린 뒤 한 번 의 퍼트도 홀아웃, 쿼드러플 보기를 적어냈다.

그는 "공이 세 번 물에 빠진 끝에 마침내 잘 친 샷 이 나왔고, 탭인으로 9타를 쳤다"고 짧막하게 소감을 밝혔다. 그는 7오버파 78타를 치고 허리가 아프 다며 기권했다. /연합뉴스

여자프로테니스 투어 8월 1일 이탈리아서 재개

남자는 8월 22일 뉴욕서 개막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대회가 8월 1일 개막하는 팔레르모 레이디스오픈(총상금 22만 5000달러)으로 재개된다.

WTA 투어는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다가 약 5개월 만인 8월 초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개막하는 팔레르모 레이디스오픈으로 일정을 재개한다.

팔레르모 레이디스오픈에 이어서는 8월 10일 개

막하는 톱시드오픈(미국 캔터키주)과 프라하오픈(체코 프라하)이 열린다.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의 경우 8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 예정인 웨스턴 앤 서던 오픈으 로 코로나19 이후 첫 대회를 열 예정이다.

팔레르모 레이디스오픈에는 시모나 할레프(2위·루마니아)와 요헤나 콘타(14위·영국), 페트라 마 르티치(15위·크로아티아) 등이 출전한다.

이 대회는 하루 약 500명 정도 관중 입장을 허용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반도
2관	반도, 블루 아워
3관	반도
4관	반도, 고 피쉬!
5관	반도
6관	반도
9관	알라딘
7관 씨네커틀	발설: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슈퍼 레이스, 팬데믹, 에베레스트
8관 씨네커틀	#살아있다, 소리꾼, 결백

GAC기획공연 FOCUS 5
이처럼 신작: 핀사리극 <노인과 바다>
2020.08.21.(금)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